

81학년도 教·職員夏期修練大會

自省察과 상행 이해의 계기

14일부터 海印寺 修練안서

본 대학은 81학년도 教·職員의 夏期修練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海印寺에서 修練안서를 실시하였다. 이번 修練안서는 自省察과 상행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4일에는 自省察을 실시하고, 15일에는 上행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일에는 自省察을 실시하고, 15일에는 上행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學期末考査 11日 閉幕

본 대학은 7월 11일(수요일)에 學期末考査를 실시하였다. 이번 考査는 1주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11일에는 閉幕을 맞이하였다. 이번 考査는 學科別로 실시되었으며, 11일에는 閉幕을 맞이하였다.



◇ 13日 13일 발대식을 거행한후 하계봉사활동단의 일부가 봉사지역인 본관앞으로 행진했다.

報恩郡에 활짝 필 사랑의 奉仕

지난 13日, 夏季 奉仕團 發隊式

農研 등 5개 팀 1차출발

사업협의회 통해 사업계획 논의

본 대학은 7월 13일(수요일)에 報恩郡에서 夏季 奉仕團 發隊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發隊식은 報恩郡에서 13일(수요일)에 1차출발한 農研 등 5개 팀의 奉仕團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發隊식은 報恩郡에서 13일(수요일)에 1차출발한 農研 등 5개 팀의 奉仕團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美國文學部 美國文學 研究會

본 대학의 美國文學部에서는 美國文學 研究會를 조직하였다. 이번 研究會는 美國文學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되어 있다.

野球部 選手 스카우트

靑山商 林東求 君 등 8名

본 대학의 野球部에서는 靑山商 林東求 君 등 8名의 選手 스카우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스카우트는 靑山商 林東求 君 등 8名의 選手 스카우트를 실시하였다.

職場豫備軍 發隊

靑大 단위, 靑州大 포함 2천여명

본 대학은 7월 13일(수요일)에 職場豫備軍 發隊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發隊식은 靑大 단위, 靑州大 포함 2천여명의 職場豫備軍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司試 최종합격자

노영대 君 등 7名

본 대학은 7월 13일(수요일)에 司試 最終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번 最終합격자는 노영대 君 등 7名의 司試 最終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행정학 學術 세미나

사학과 靑島 靑島 18명 참석

본 대학은 7월 13일(수요일)에 行政學 學術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사학과 靑島 靑島 18명 참석하여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서 전지훈련가진 籠球部

친선경기에서 5승 2패 기록

본 대학의 籠球部는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 이번 전지훈련은 친선경기에서 5승 2패 기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靑州大 1學年 靑島 靑島 靑島

본 대학의 靑州大 1學年 靑島 靑島 靑島를 실시하였다. 이번 靑島 靑島 靑島는 靑州大 1學年 靑島 靑島 靑島를 실시하였다.

靑島 靑島 靑島

본 대학의 靑島 靑島 靑島를 실시하였다. 이번 靑島 靑島 靑島는 靑島 靑島 靑島를 실시하였다.

진취적인 기상과 강인한 투지가 넘치는 개척정신

스포츠에서 배우는 삶의 정신

본 대학은 7월 13일(수요일)에 體育大會를 실시하였다. 이번 體育大會는 體育大會를 실시하였다.

제 4회 한국문학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다

이영익

제 4회 한국문학학회 학술대회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문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학회에서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영익 회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이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문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文獻설화와 說話詩

이영익



李 鍾 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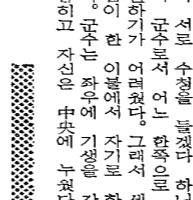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文獻설화』는 주로 역사적 사실이나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화이다. 반면 『說話詩』는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바탕으로 한 시이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金 敏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文獻설화』와 『說話詩』는 한국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 이 두 장르는 각각 문헌적 사실과 민중의 구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영익은 이 두 장르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文學의 형성以前에

社會否定的的面이眞實로 해석되기도 諧謔과 풍자로口傳의生命力 뛰어난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始初』는 문학의 형성 이전의 사회 부정적 면이 진실로 해석되기도 하며, 해학과 풍자로 구전의 생명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

眞實假事의 徹底的的 敎訓, 眞實의 眞實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小説의 母體로서 眞實의 關係』는 소설의 모체로서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영익은 이 작품의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자신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옷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원단을 직접 개발하는 데 힘써는 저희 캄브리지 1981년 봄, 여름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급진 시련에는 특별히 손바느질로 직접 비프고 복잡하게 들어가는 현대 사회의 숨겨진 경쟁 속에서도 손쉽게 자신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디자인, 색상, 소재 선택에서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Shirts
국내 최대의 서비스 센터인 원이 상용화 미국의 편하한 서비스가 기술 제품도 만만치 않은 신제품 감각의 다양한 제품.
●MANHATTAN : 값 8,500~28,000원
●WONMI ORIGINAL : 값 6,000~9,800원

Jumpers
●T/C : 값 15,000~20,500원
●COTTON : 값 18,500~19,500원

Slacks
●A/WOOL : 개미전 제품, 값 33,000원
●HI-BRIO : 값 26,400원
●GOLF SLACKS : 값 16,500원
●WASHABLE : 값 17,600원

Necktie
●값 7,000~10,000원

Sports coats
●A/WOOL : 울의 복상용 최미로 신진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쉽게 입을 수 있는 옷감, 값 36,100원 ●HI-BRIO : 값 42,200~52,800원
●HOPSACK : 울의 비프이브로 개미전 제품으로 입었을 때 가장 훌륭한 옷감, 값 49,800원 ●WASHABLE : 울의 복상용 쉽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옷감, 값 34,100원

남자 패션의 전문업체
MAN IN WOOL CAMBRIDGE 캄브리지
삼동양부주식회사
48-4 경인로 48동 401, 1, 2, 4층 (서울) 전화 5148537392, 12, 7114

奉仕活動을 위한提言

전 전 전

본문은 1956년 10월 13일 3월 30일(수)에 발행된 『대한민국의 교육』 10월호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은 당시 교육계에서 제기된 사회봉사(奉仕)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한다. 특히, 농민과 학생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유자백이

李 蔭 培

유자백이(劉子白)는 1914년 1월 14일(음력 12월 14일)에 태어났다. 본명은 유자백(劉子白)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35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48년 12월 12일(음력 11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유자백이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변호사로서,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데 앞장섰다.

우리나라에 사랑하느니 마음질러야 西洋音樂보다 韓民의 生活智慧지녀

우리는 서양음악보다 우리 민족의 생활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서양음악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우리 민족의 생활 지혜는 단순하고 소박하며, 그 속에 깊은 철학과 감정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음악, 즉 민중가요나 민요를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음악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서양음악보다 우리 민족의 생활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서양음악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우리 민족의 생활 지혜는 단순하고 소박하며, 그 속에 깊은 철학과 감정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음악, 즉 민중가요나 민요를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음악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의 문제이다.



放學과 스님
한국의 불교계와 스님들의 모습. 사진은 1956년 10월 13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 社會運動의 한부분

農民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姿勢 필요 學生이라는 身分 한계 탈피 바람직

전체적인 사회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학생들은 농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사회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학생들은 농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南道 소리는 世上에서 제일 슬픈 노래

남도의 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이다. 이는 단순한 음악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상징이다. 남도의 민중들은 전쟁의 참상과 가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슬픔은 그들의 노래에 담겨, 세상 곳곳에 울려 퍼졌다.

농심라면은 전제품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

농심에서는 라면생산에 식물성기름, 팜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팜유는 영양, 건강상 좋을 뿐만 아니라 맛이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좋은 기름으로 만든 좋은 라면을 자신있게 권합니다.

신제품
개량라면

농심(株) 農心

농심라면

농심(株) 農心

농심라면은 전제품에 식물성기름을 사용합니다.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